

## 통도사성보박물관 자원봉사단 운영

김 범 하\*

### 1. 개요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수급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사립박물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인력 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전시실 관리요원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역시 개관에 앞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부족한 전시실 관리요원이었다. 특히 불교회화가 중심이 되는 우리 박물관은 대형불화들이 많아 부득이하게 외부에 노출시켜 전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500여 평의 전시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경비 및 관리요원 충원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박물관의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10명이나 되는 상근 요원을 충원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상한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1998년 9월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소양을 쌓는 기회를 부여하고, 박물관의 전시실 관리와 박물관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박물관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 2. 자원봉사단 모집과 구성

포스터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자원봉사자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당초 200명의 목표를 훨씬 넘어선 총 500여명이 지원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지금도 문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80여명이 등록되었다.

우선 1차로 접수된 인원을 살펴보면 남녀성비는 총 501명에 남성이 87명, 여성이 414명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연령별 분포는 다음표와 같다.

지 역	인 원(명)	연 령	인 원(명)
부산	280	20대	70
울산	110	30대	106
양산	92	40대	200
기타	19	50대	108
계	501	60대	17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이렇게 많은 인원들은 모두 26개조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조에는 조장이 선발되어 있으며, 조장을 통하여 모든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있다. 봉사활동은 조별로 진행되며, 조별모임도 활발하여 봉사활동 외에 친목을 쌓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조도 늘고 있다.

### 3. 자원봉사자를 위한 문화강좌

봉사자 선발에 앞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의 일정에 따라 강의가 진행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시작된 강좌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3개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현장학습 및 봉사자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3회의 유적답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강 의 내 용	강 사 (현 직)	답 사
10월	오리엔테이션 불교미술개론 - 불상·탑과 불교인의 신행자세 여성의 문화활동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실 진철스님 진민자	경주 남산 불적답사
11월	불교문화와 불자의 자세 통도사의 역사와 가람배치 한국의 문화유산 기초박물관학	지안스님 선오스님 한병삼(동국대 교수) 이난영(동아대 교수)	달빛기행(야간) 경주 남산 탐곡, 불곡, 감은사지, 대왕암, 기 림사 등 (1박 2일)
12월	박물관의 소장유물 - 조각·공예 박물관의 소장유물 - 불교회화	학예연구실 학예연구실	국립경주박물관 관람
1월	특강 토론회	정재훈·정영호(교원대) 범하스님(박물관장)	
2월	한국의 불화 한국의 복식 한국의 범종	석정스님(인간문화재) 권영숙(부산대 교수) 학예연구실	
3월	불교공예 한국의 기와 문화재의 조사와 보존 수료식 및 자원봉사단 발대식	정길자(경상대 교수) 김유식(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 4. 자원봉사단 활동

이상과 같이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들은 개관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1만여 명이 운집한 개관식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를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시실 및 시설물관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전시실 관리이다. 특히 외부 노출 전시물이 많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시실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은 고려복식을 응용한 단복을 입고, 명찰을 착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봉사자들은 모두 26개조로 편성되어 한 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학예연구실로 통보하며, 관람객의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살피는 창구 역할도 겸하고 있다.

## 2) 전시실 안내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두 달 정도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보람을 찾는 봉사자들이 늘고 있다. 개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전시유물에 대한 지식을 익히기도 하고, 관람객들의 질문을 매도하여 학예실에 문의하는 사례도 많다. 학예연구실에서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각종 행사보조

우리 박물관은 사찰박물관이라는 특성상 많은 행사가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 많은 대중이 운집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진행을 돕게 된다. 우편물 발송을 시작으로 행사준비와 내빈 안내 등을 담당하여 행사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 4) 개인별 특기를 통한 봉사

다양한 계층에서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있어서 다양한 특기를 소지한 봉사자가 많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나, PD, 리포터 등 방송국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이 박물관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개관식 안내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대학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고, 포장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형 유물의 포장과 운반을 도운 사례도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 5) 개인별 특기와 취미활동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분반활동

자원봉사단 내에는 다음과 같이 특기와 취미활동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분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임	인원(명)	활동	비고
합창반	60	매주 월요일 1시 연습	각종 박물관 행사에 참여
다도반	90	매주 화요일 10시 모임	박물관 행사에 참여
꽃꽂이반	30	매주 금요일 10시 모임	박물관 중앙홀 및 계단에 꽃꽂이
연구답사반	200	매주 토요일 2시 모임	관람객들에게 전시유물 안내 활동
외국어반	50	영어반과 일본어반으로 나뉘어 목요일 10시 모임	외국인 관람객 안내 활동

## 5. 자원봉사단 운영의 효과

### 1) 인력절감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박물관의 경우 10명 이상의 전시실 관리요원이 필요하지만 자원봉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 기존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많은 일손이 필요한 행사 등에도 봉사자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다.

### 2)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지역주민들을 박물관 운영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박물관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아울러 유대감이 강화됨으로 인해 지역에서 행해지는 박물관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 3) 박물관 문화사업의 공감대 형성

일반인들이 박물관의 문화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 박물관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아울러 박물관 문화사업의 필요성이 확산됨으로 인해 박물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박물관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 4)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현재 통도사성보박물관에 개설되어 있는 유료 문화강좌는 4월 30일에 개강한 박물관대학을 비롯하여 불화그리기반과 서각공예반이 있다. 이들 강좌 정원의 약40%를 봉사자들이 등록하여 자연스럽게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되고 있다.

## 6. 자원봉사자를 위한 혜택

- 전시실 유물에 대한 자료와 교재 배부
- 가족 및 동행한 3인까지에 한하여 사찰 및 박물관 무료입장
- 각종 문화강좌 및 출판물·기념품 할인혜택
- 박물관 간행물 배부

지금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제 문을 연지 두 달이 채 안된 지금, 우수 사례이기보다는 우수 사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이다. 일단 지금까지는 많은 지원자를 바탕으로 잘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례발표가 봉사자들이 박물관을 위한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과연 박물관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박물관에서 종일 봉사하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혜택이 아니라 문화의 일선에서 활동한다는 자부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 박물관 자원봉사자 및 박물관대학 수료자, 그리고 박물관 회원들에게 보다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제 박물관학회 및 박물관협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